

제 102호 문제학생 다루기 2

지난 호에는 문제학생을 다루는 기본 기술 중에 "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호에는 "해야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 해야하는 사항 (1) 학생이 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이해한다.

문제 행동은 다양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소란 피우기, 잡담하기, 신문보기, 줄기, 화장실 자주 들락거리기는 그런 대로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기, 교수님께 노골적으로 반발하기, 또는 고의적으로 시비 걸기는 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수업을 정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이유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되는 행동은 다양하지만 문제 행동 저변에 깔린 이유는 대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흔한 이유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문제학생이 자신의 행동이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 모르고 있다.

옆에 앉은 학생하고 작은 소리로 소근거리는 학생은 자신의 목소리가 남에게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자봉지를 무시락거리면서 과자를 꺼내 먹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을 심하게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그런 행동이 옆 학생한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지적해서 깨닫게 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방방법은 다음 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 문제학생이 수업 내용을 따라 올 능력이나 준비가 부족하다.

수업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경우 수업이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지고, 학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딴 짓을 하게 됩니다. 또는 좌절한 나머지 수업에 아예 신경을 끄고 "에라, 될 대로 되라"며 자포자기하게 되면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학생의 문제 행동을 지적하고 야단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불러서 진로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3. 문제학생이 권위자를 흉내내고 있다.

교수님께 뼈뺏하게 나오는 학생들은 뼈뺏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장기전을 치루실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문제학생을 푸근하게 감싸주시면 학생이 누그러질 승산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경멸하거나 하찮은 존재같이 대하면 학생들은 그와 같은 행동을 배우고 흉내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미 병적으로 성격에 이상이 생긴 학생인 경우는 대학본부 또는 학생상담실에 알리고 교수님께서 직접적인 충돌이나 개입은 가능한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4. 문제학생은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주목을 받거나 권력을 느끼거나 이득을 얻으려 한다.

문제학생은 문제 행동에 대한 교수님의 반응에 따라 새로운 문제를 계속 터트릴 수 있습니다. 옆 학생하고 잡담하지 못하게 했더니 아예 노골적으로 신문을 뒤적거린다거나, 강의실 늦게 들어오는 것을 야단쳤더니 강의가 끝나기 전에 훑나가 버린다거나 교수님의 신경을 자극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마치 학생과 교수님의 머리싸움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서는 "두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교수님은 학생을 컨트롤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반응을 보이는 그 자체가 문제학생의 (무의식적)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 만족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반응이 바람직합니다. 그 대신 교수님의 인격으로 학생들을 암암리에 압도해야지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음 호에는 문제학생을 효과적으로 대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벽, 2000